

베르만의 생산적 번역 비평 이론을 적용한 *The Vegetarian* 번역 비평*

김민정 · 채경화** · 명선혜 · 웨이잉
(이화여대)

1. 서론

지금까지 국내의 문학번역 비평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나 언어적 등가를 위주로 이루어졌고, 일부에서는 오역 지적을 번역 비평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이윤기(2013)는 “문화의 번역자들에게는 오독과 오역 또한 숙명이다. 내 뜰로 들어와 잡초를 뽑아주는 것은 고맙지만 저주에 가까운 비아냥은 문화 번역 현장을 전쟁터로 만들 뿐, 도움 되는 바가 적다 고 하였다. 실제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는 2016년 5월 *The Vegetarian*으로 맨부커 국제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 이 연구는 이화여대 박사과정 2020-2학기 문화간커뮤니케이션 수업[담당교수 이영훈 (고려대)]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교신저자

수상한 후 한국 문학계와 평단에서 날아오는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오역 지적 메일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느라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고 사석에서 밝힐 정도였다.)¹⁾ 한편 번역학계를 중심으로 단순한 오역 지적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문학번역 비평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문학번역에서 번역 전략이나 문학적 특징을 다루는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문학번역 비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문학번역에 대한 일방적 흠집 내기에 서 벗어난 문학번역 비평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문학번역 비평을 통해 어떻게 문학번역 작품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낼 수 있을까?

문학과 문학 비평이 그렇듯이 문학번역과 문학번역 비평은 불가분의 관계다. 비평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독자들은 새로이 소개된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국내의 번역학계에서도 문학번역 비평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번역 비평에 대한 이론적 논의(이영훈 2015; 이인규 2015)뿐 아니라 실제 문학번역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다수 있다(김순미 2014; 유한내 2018; 이혜원 2018; Biase 2015).

이러한 문학번역 비평의 이론적 근거 중 하나로 베르만(Berman) 사후 3년 후인 1994년에 나온 *Pour une critique des traduction: John Donne (Toward a Translation Criticism: John Donne, Massardier-Kenney* 번역 2009, 이하 TTC)에서 체계화하여 제시된 ‘생산적 번역 비평’이 있다. 베르만의 비평 방법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오류를 지적하는 수준의 문학번역 비평에서 벗어나 문학번역 결과물에 문학작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번역가의 번역관을 파악하여 비평에 반영하고, 번역가의 전략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상원(2008)이 제시한 제대로 된 문학번역 비평의 특징²⁾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 1) 이번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채경화가 석사과정 1학기 재학 당시 작품 과목 수업을 담당한 허정범(Anton Hur) 강사의 언급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해당 강사는 현재 데보라 스미스와 함께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으로 번역서를 출판하고 있다.
- 2) 이상원(2008: 162)에 따르면, 문학번역 비평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 1) 문학번역 결과물에 문학작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 2) 문학번역 텍스트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비평 대상으로 삼아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 3) 비평자의 번역관을 밝히고 평가능력을 바탕으로 비평의 초점을 명확히 한다.
 - 4) 문학번역 텍스트를 통해 번역자의 번역관을 파악하고 이를 번역 비평에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르만의 ‘생산적 번역 비평’ 방법을 이용하여 『채식주의자』 연작 중 1부 『채식주의자』의 영어 번역본에 대한 새로운 번역 비평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원작과 번역 작품의 텍스트 분석뿐 아니라 번역가의 번역 입장, 번역 기획, 번역 지평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번역가에 대한 분석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번역가에 대한 정보가 번역 비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2.1 『채식주의자』 번역 비평

국내에서 『채식주의자』 영역본 *The Vegetarian*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대중(2016)은 영역본에서 나타난 오역이나 과도한 의역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본은 “등장인물의 성격을 원작과 다르게 이해하게 하거나 “줄거리에 중요한 부분의 뉘앙스를 바꾼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번역가의 “한국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번역가의 오리엔탈리즘을 보여줬음을 주장하였다. 신혜정(2017)은 영역본의 오역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스미스가 충실성과 정확성이라는 번역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원문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변용하며 첨가하는 저자의 권한을 누렸다는 점에서 ‘번역’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오역 사례 분석보다는 스미스의 번역 전략을 중심으로 다룬 연구들도 있었는데, 김영신(2016)은 텍스트의 비교 분석, 데보라 스미스의 신문 인터뷰나 기고문에 대한 고찰, 그리고 국내외 언론과 학예지 평자들의 평가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데보라 스미스는 자국화, 즉 “독자 친화적 수요자 중심적인 번역 전략을 우세하게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The Vegetarian*은 번역된 한국 문학이라기보다는 동시대 영문학의 리듬(rhythm)과 결(texture)로 온전히 다시 쓰여진 작품 이라고 하였다. 이강선(2016) 역시 *The Vegetarian*이 목표 문화 중심으로 번역된 점을 지적하며, 한강의 『채식주의자』

5) 오류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번역자의 전략을 분석한다.

6) 도서 출판을 위한 번역의 경우 그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다.

와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은 전혀 다른 맥락과 정서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기에 데보라 스미스의 *The Vegetarian*에 대한 분석은 주로 오역, 의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들 학자도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이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였으나³⁾ 전체적인 논조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후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The Vegetarian*을 분석하거나 오역이나 의역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 또한 적지 않게 이어졌다. 이지민(2016, 2018)은 이중시점과 내포작가 관점, 그리고 영역본의 삭제 전략에 집중하여 *The Vegetarian*에서 채택된 번역 전략이나 기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마승혜(2017)는 체계기능언어학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The Vegetarian*을 대상으로 번역 시 의미가 구현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는 맨부커상을 수상한 *The Vegetarian*은 우수한 번역이라는 전제하에 소위 잘된 번역은 어떠한 번역 전략 또는 구체적인 기법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위 연구들은 실제 문학작품 번역 시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어떤 전략과 기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번역가가 어떤 번역관을 바탕으로 이런 전략이나 기법을 택했는지에 대해 설명은 없어 진정한 의미의 문학번역 비평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인규(2017)는 한국과 서구의 번역관, 특히 충실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주목하여 데보라 스미스의 영역본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또한 조의연과 조숙희(2019)는 “재번역의 두 가지 중심 패러다임인 ‘결여-향상’ 패러다임과 ‘해석-다양성’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The Vegetarian*에서 발생하는 생략과 압축, 의미변형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The Vegetarian*을 분석하여 논의한 시도로 볼 수 있다.

3) 이강선은 “*The Vegetarian*은 한국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영문학 작품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에 일조하는 번역으로 보인다(2016: 307) 고 평가하였고, 신혜정 또한 “*The Vegetarian*의 맨부커상 수상은 한강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대중에게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고 *The Vegetarian*이 한국 문학번역 발전에의 기여를 인정하였다(2017: 664).

2.2 문학번역 비평에서 번역가에 대한 고려

생산적 번역 비평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원작품을 읽기 전에 번역 작품 읽기를 반복하여 번역 작품이 그 자체로 충분한 문학성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고, 번역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비평 이전에 번역가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는 점이다. 특히 베르만은 문학 작품을 대할 때 작가가 누구인지 고려하는 것처럼, 번역 작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번역가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Berman 2009: 57). 베르만이 번역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번역 입장, 번역 기획, 번역 지평의 개념은 ‘번역하기’에 대한 번역가의 입장과 이를 형성하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부르디외(Bourdieu 1990)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과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는 가정사나 교육 배경을 통해 형성된 한 인간의 과거와 현재 모습 속에 나타나는 성향(disposition)체계를 뜻한다. 시메오니(Simeoni 1998)가 번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비투스라고 주장하며 아비투스 개념을 번역학에 처음 접목시킨 이후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번역가에 주목하는 경향과 함께 아비투스 개념을 적용한 연구가 발표되었다(윤소영 2013; 임진 2020; 명선혜 2020).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번역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번역 입장, 번역 기획, 번역 지평을 살피는 것이 문학번역 비평 시 매우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내 문학번역 비평에서 번역가가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지, 왜 해당 작품을 번역하게 되었는지, 번역 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등 번역가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있더라도 번역 결과물을 기준으로 번역 전략을 유추하는 방식이 대다수였다. 최근 10여 년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문학번역 비평을 살펴보면 동일 원작에 대한 여러 종류의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면서 비평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은데(정혜용 2010; 김모세 2012; 김순미 2014; 김화영 2018; 이지연 2019), 서로 다른 번역가가 번역한 작품의 비교에서 번역 주체인 번역가가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일부 연구(유한내 2015, 2018; 이혜원 2018)에서 베르만의 번역 비평 방법론을 이용하였고, 특히 이혜원(2018)은 『채식주의자』의 불어본을 대상으로 충실하게 생산적 번역 비평 방법을 적용하여 번역 작품을 분석하

였다. 하지만 2016년 맨부커상 수상으로 문학번역 작품성을 인정받은 『채식주의자』의 영어본 *The Vegetarian*을 대상으로 베르만의 번역 비평 방법을 적용한 선행 연구는 없어, 이번 연구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 방법

3.1. 앙트완 베르만의 생산적 번역비평 방법

베르만이 TTC에서 주장한 번역 비평 방법론의 첫 단계는 번역의 읽기와 다시 읽기, 반복적 원문 읽기이다. 그는 번역을 읽을 때 원문을 생각하지 않고 서둘러 비교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이런 번역 읽기를 통해 번역된 텍스트가 과연 ‘홀로서기(stand)’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홀로서기란 도착언어의 텍스트가 도착언어의 글쓰기 규범을 따르고 진정한 텍스트로서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가 된다는 뜻으로, 번역 작품 자체가 내재적으로 견고하며 생명력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이다. 생산적 번역 비평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번역문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적인 부분(일관성 약화, 리듬감 저하, 과도한 유창성, 지나친 자국어화, 지나친 직역투)를 제시하고, 번역적 글쓰기를 통해 번역가가 새로운 모국어를 창조하는데 일조하는 부분이나 완성도가 높고 번역이 절묘한 부분을 찾아낸다. 다음으로 원문을 읽을 때도 역시 번역문을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원문 읽기를 통해 작품의 문체적 특징을 파악하게 된다. 즉 어떤 유형의 문장인가, 형용사, 부사, 시제 등 언어학적 특징은 어떠한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핵심 단어나 글 전체의 리듬이나 패턴이 있는가, 은유체계 시니피앙, 용어 개념 체계 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은 진정한 대조 분석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사전분석이라 칭할 수 있으며 비평가의 읽기는 번역가의 읽기보다 더 연관성이 있고 더 체계적이어야 한다. 사전분석을 바탕으로 비평가는 원문의 문체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을 고르고 사례를 통해서 대조 분석해야 한다. 원문 읽기를 두 절차로 나누면, 첫째 텍스트의 사전 분석을 통해서 원문의 기본적인 문체 특징을 파악하고, 둘째 원문에 대한 해석으로 ‘의미 있는 구절(의미심장한, 필연성이 느껴지는)’을 선정한다.

베르만의 번역 비평 방법론의 두 번째 단계는 번역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는 번역가의 국적, 아비투스, 기존의 번역 작품 존재 유무, 한정된 작가 또는 다수 작가에 대한 번역 유무, 번역가에 대한 기사, 논문, 인터뷰의 존재 유무 등을 바탕으로 번역 작품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가에 대해 분석으로 우선 번역가의 번역 입장(The Translating Position)을 고려한다. 이는 번역가의 번역 충동, 번역 과제, 주변 번역 담론을 흡수하는 방식을 혼합하는 것(이영훈 2015: 132)이며, 번역가가 가지고 있는 번역의 개념, 의미, 목적, 형태, 모드 등에 대한 이해, 역사적, 사회적, 문학적 이데올로기 등 주변 번역 담론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역자 서문, 인터뷰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번역가의 개인적인 관점과 진정한 번역 입장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번역 입장을 고려할 때 결텍스트 또한 해석하고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로 번역 기획(The Translation Project)을 고려한다. 모든 번역은 하나의 기획 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며 이런 기획은 번역 입장과 번역 텍스트의 특정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번역가가 ‘문학 전이(literary transfer)’를 실현하는 방식뿐 아니라 번역 모드와 번역 스타일까지 정해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비평가는 번역 기획을 바탕으로 번역을 읽어내야 하며 가장 확실하게 번역 기획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번역 작품이다. 번역된 작품이야말로 번역 기획의 순환 관계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번역 지평(The Horizon of the Translator)을 고려한다. 지평은 현대 해석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번역가가 느끼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언어적, 문학적, 역사적 변수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번역 지평은 번역가의 행동이 의미를 갖고 번역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자 번역가가 처해있는 제한적인 가능성의 공간이다. 정리하면 번역 지평은 번역과 관련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해당하고, 번역 입장과 번역 기획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특징을 지닌다.

세 번째는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하는 단계로 번역문이 원문의 문학성을 얼마나 구현하였는지 시적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윤리적 기준을 근거로 원문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다. 다음 단계는 번역된 작품이 목표 언어권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재번역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번역 기획 원칙을 제안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이영훈 2015: 133).

3.2 분석 대상

이번 연구에서는 베르만이 제시한 생산적 번역 비평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인 ‘번역 읽기와 다시 읽기, 반복적 원문 읽기 과정’을 전제로 두 번째 단계인 번역가 분석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원문과 번역문의 텍스트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The Vegetarian*의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에 대한 분석을 위해 번역가와 한강 작가의 인터뷰를 수집하여 스미스의 번역 입장, 번역 기획, 그리고 번역 지평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비교 분석 대상은 한강의 연작소설 『채식주의자』 속 연작 중 1부에 해당하는 「채식주의자」이다.

4. 분석 결과

4.1 번역가 분석

데보라 스미스는 1987년 영국 동커스터(Doncaster) 출생으로 2009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할 즈음에 번역가가 되기로 결심한 후 영국에 소개된 한국 문학 작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국 문학 작품 번역가가 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독학으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스미스는 2010년 런던 대학교 한국학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고 이후 2015년에 같은 대학교 동양 및 아프리카 학부(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한국학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이처럼 그녀는 한국학에 대해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국 문학 번역 활동에 참여하였다. 2012년 『아시아 리터러리 리뷰(Asia Literary Review)』에 배수아 작가의 「그 사람의 첫 사랑」 번역을 실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지원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수아 작가의 『에세이스트의 책상』을 번역하고, 2015년에는 영국의 유명 출판사인 포트벨로북스(Portobello Books)를 통해 첫 출판 번역 작품인 *The Vegetarian*을 출간하게 된다. 한국어를 배운지 불과 5~6년 만에 데보라 스미스는 놀라운 집중력과 열정으로 한국 문학을 만나고 번역이라는 창조적 글쓰기를

통해 한국 문학을 영국에 소개하였으며, 현재는 아시아 문학과 아프리카 문학을 다루는 비영리 출판 단체 틸티드 액세스 프레스(Tilted Axis Press)를 직접 설립하면서 영국 사회에 낯선 문학을 소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데보라 스미스는 *The Vegetarian*을 번역하게 된 계기에 대해, 기존 영국 출판계에 소개되었던 한국 문학 작품은 한국의 문화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던 반면, *The Vegetarian*은 보다 보편적 소재와 배경을 가지고 영국인들에게 새롭고 흥미로운 문학작품이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지은경 2015). 다시 말해 그녀는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번역가일 뿐 아니라 독자의 수요를 읽어내어 번역할 작품을 선정하는 번역 기획가이자, 비영리 출판 단체를 운영하는 출판가이고, 현재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영국문예창작센터에서 운영하는 ‘신진 번역가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여 한국 문학 번역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었다.

4.1.1 번역 입장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스미스는 번역이 창의적인 일이며,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인 한국어 텍스트를 정독하고, 그것에 깊이 개입하며, 작가와 평생의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번역에 폭 빠져 있을 때, 원작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만난다고 한다(정현상 2016). 『채식주의자』를 번역했을 당시, 데보라 스미스는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문학 번역에 참여한 경험이 거의 주를 이루었으며, 번역 시 번역가가 작가와 어떠한 통로를 통해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경험이 전무하였다. 하지만 첫 출판 번역 작품인 『채식주의자』를 번역하면서, 스미스는 한강 작가에게 먼저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번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원작가와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였다(Han and Smith 2016).

특히 *The Vegetarian* 번역과 관련된 주요 논란의 주제인 ‘번역의 충실성’에 대해 데보라 스미스는 번역가가 충실해야 하는 것은 원작의 예술성과 문학적 품질이기 때문에 한편의 훌륭한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한다고 할 때, 그 번역은 한 편의 훌륭한 영문학 작품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Montgomery 2014). 원작자인 한강도 주인공 영혜가 악몽을 독백하는 부분의 느낌을 본인의 감정과 톤 그

대로 번역한 것 같아 놀랐고, 마음이 통했음을 느꼈다고 밝힌 바가 있음에 비추어 그녀의 번역은 적어도 원작가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예술성과 문학적 품질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겠다.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심사위원장 보이드 톤킨(Boyd Tonkin)은 “이 소설은 잔혹한 호러와 멜로드라마, 냉철한 알레고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도 독보적 차원의 침착, 재치, 절제를 겸비하는, 거의 기묘하기까지 한 작품 이라고 하며 이것이 한강 작가뿐 아니라 데보라 스미스의 놀라운 번역에 의해 구현된 것이라고 했다(Flood 2016).

4.1.2 번역 기획

베르만(2009)은 번역 비평가는 반드시 번역 기획을 바탕으로 번역을 읽어야 하며, 번역 기획은 번역문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The Vegetarian*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번역 기획은 어떠한가?

*The Vegetarian*이라는 번역 작품은 이전에 영국 출판 시장에 번역된 다른 한국 문학 작품들과는 달리, 이미 미국 출판 시장에서 검증된 작품(예, 『엄마를 부탁해』)도 아니고, 한국적인 문화를 담고 있는 작품(예, 『마당을 나온 암탉』, 『별을 스치는 바람』)도 아니었다. 영국 문학계에 새롭고 낯선 형식인 연작 소설 『채식주의자』는 한국적인 문학 작품이어서가 아니라, 독자에게 이전의 영국 문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드문(extraordinary) 경험’⁴⁾을 선사해주기 위해 번역된 작품으로 봐야 하고, *The Vegetarian*의 작품성과 번역의 충실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실제로 맨부커상 심사평에서도 『채식주의자』는 한국 현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지만, 갇힌 육체에서 나오는 수치심, 욕망,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불안한 시도를 담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보편적 정서에 바탕을 두고 영국 문학에는 낯선 새로운 문학 양식, 문체적 특징을 선보이고자 한 *The Vegetarian*의 번역 기획이 독자인 심사위원들에게도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1.3 번역 지평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 지평은 번역이 이루어진 당시 ‘영국에서’ 한국 문학

4) 『가디언(The Guardian)』 지에 나온 언급으로 *The Vegetarian* 표지에 나온 표현이다.

을 번역하는 방식, 유행하는 문학 형식, 문학 번역 또는 번역 일반에 대한 논의를 뜻한다.

스미스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 런던 서점에서 볼 수 있는 한국 문학 번역은 신경숙 작가나 황선미 작가의 작품 정도며, 미국 출판사에서 번역된 김영하 작가, 황석영 작가의 책은 서점에 가서 따로 주문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지은경 2015). 2014년 런던도서전 주빈국으로 한국이 참가하면서 당시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이정명 작가의 『별을 스치는 바람』이 영국 런던 주요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한국 문학 작품에 대해 이례적으로 높았던 관심이 지속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영국 시장에 출판된 *The Vegetarian*의 번역 수용을 살펴 보면, 출판 후 주요 대상 언어권인 영국과 미국에서 긍정적 평론을 바탕으로 2016년 영국 맨부커상 수상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수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미권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적잖은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4.2. 텍스트 비교 분석

베르만(2009)에 따르면 진정한 ‘비평다운 비평’의 조건을 바탕으로 한 번역 분석이 번역 작품 평가를 이끌어야 한다. 번역 비평은 모든 사건, 의견이 배제된 중립적 담백함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이중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기준은 시적 창조성(poeticity)으로 시성 또는 문학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학성은 번역가가 진정한 문학 작품을 만들어 냈는가, 원문의 문학성에 부합하면서 번역된 작품이 하나의 창조적인 문학작품으로 홀로서기가 가능한가를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 번역 작품 자체에서 나타나는 문학성을 평가하고 비평하는 것이 베르만의 생산적 번역 비평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윤리성(ethics)이다. 이는 원문을 존중하는 태도 혹은 원문에 대한 존중을 말하며 원문을 그저 베끼는 작업이 아닌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번역가의 별도 작업을 통해 번역 작품을 탄생시키는 태도를 일컫는다. 번역 비평을 위한 번역 작품 분석 시 비평가는 개인의 편견에 따른 공정성이 결여된 분석을 지양하고 독단적인 분석을 벗어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르만이 제시한 이중 기준인 시적 창조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번역 분석을 수행하여 생산적인 번역 비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4.2.1 시적 창조성과 윤리성

번역가 테보라 스미스의 2016년 신동아 인터뷰에 따르면 스미스는 『채식주의자』를 번역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으로 1부의 꿈속 독백 부분을 꼽으면서 이에 대한 이유로 그 부분에서만 주인공 영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정현상 2016). 더욱이 그 독특한 독백들은 1부의 주요 화자인 남편의 시점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 지점이 채식주의자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본 분석을 수행한 연구자들 또한 단지 하나의 번역문이 아닌 완전한 새로운 문학작품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 놀라움을 경험하였으며 원문과의 대조를 통해 스미스가 자신의 번역 입장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대목은 번역가 테보라 스미스가 단독적으로 번역에 관한 모든 부분을 결정했는 것이 아니라 원작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번역에 대해 끊임없이 원작가와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베르만이 제시한 윤리성의 측면에도 충분히 부합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분석에서는 『채식주의자』 연작 중 제1부 「채식주의자」 번역본을 중심으로 시적 창조성 측면 중 표현 스타일, 즉 문체에 대해 반복, 도치, 강조 표현, 동일 어구 사용, 수사적 표현 중 설의법 사용 등의 일반적인 문체적 특징을 찾아 분석하고 서사의 관점에서 본 정보 전달 및 설명 표현의 예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번역 작품의 문체 중 단연 백미인 독백 부분의 시적 표현과 묘사 즉 시각화에 대한 분석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4.2.2 비교 분석 결과 예시

〈표 1〉 일반적인 문체적 특징

특징	원문(쪽)	번역문(쪽)
반복	1. ~ 길지도 짧지도 않은 (9)	1. ~ <u>neither long nor short</u> : (3)
	2. ~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 힘있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9)	2. ~ <u>neither fast nor slow, striding nor mincing</u> . (3)

	3. ~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10)	3. ~if there wasn't any special attraction, <u>nor did</u> any particular drawbacks present themselves~ (3)
	4. ~ 신선함이나 재치, ~ 찾아볼 수 없는 (10)	4. ~ I could detect <u>neither</u> freshness nor charm,~ (3)
도치를 사용한 강조	1. 끼니때에만 문을 열고 나와 말없이 음식을 만들었다. (11)	1. Only at mealtimes would she open the door and silently emerge to prepare the food. (5)
	2. 사실 그런 아내와 산다는 게 그다지 재미있는 일일 리는 없었다. (11)	2. To be sure, that kind of wife, and that kind of lifestyle, did mean that I was unlikely to find my days particularly stimulating. (5)
동일 어구 사용	1. 자신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였다. (23)	1. She wouldn't <u>so much as</u> pick up her spoon. (16)
	2. 나는 가끔 불길한 생각을 했다. (24)	2. Now and then, all of this struck me as being <u>not so much</u> ridiculous as faintly ominous. (17)
	3. 종내에는 환자처럼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25)	3. ~her body resembled <u>nothing so much as</u> the skeletal frame of an invalid. (18)
수사적 표현	1. 도대체 저렇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20)	1. How on earth could she be so self-centered? (13)
	2. 그녀에게 저토록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었다니. 저렇게 비이성적인 여자였다니. (20)	2. The very idea that there should be this other side to her, one where she selfishly did as she pleased, was astonishing. Who would have thought she could be so unreasonable? (13)
	3. 아내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있을까. 저 중년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걸까. 순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녀의 머릿속이, 그 내부가, 까마득히 깊은 함정처럼 느껴졌다. (33)	3. Did she not even recognize the situation for what it was? Was it possible that she hadn't grasped the status of the elegant middle-aged woman facing her? <u>What shadowy recesses lurked</u> in her mind, <u>what secrets I'd</u> never suspected? In that moment, she was utterly unknowable. (25)

<표 1>의 분석 사례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 서술문에서는 대략 두세 문

단에 걸쳐 반복적인 어구를 사용하는 경향이 보인다. 번역가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동일한 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원문 작가의 동일한 단어 반복을 구현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게다가 원문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복 경향까지도 번역가가 스스로 번역문에 녹여냄으로써 도착어권 독자의 읽기와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문 작가의 문체적 특성이자 한국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도착된 문장과 수사적 표현의 문장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어구를 강조하거나 조동사의 사용이 많았으며 주어를 앞에 두는 정치 문장이나 평서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문의 구조에 충실하게 번역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사적 표현의 3번 예시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의문문을 각각 두 번씩 반복 사용하여 원문보다 오히려 문체적으로 풍부한 문장을 구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드러나는 강조적 의미가 잘 반영되었다.

<표 2> 서사적 관점에서 본 정보 전달 및 설명 (Expository writing) 표현 스타일

	원문(쪽)	번역문(쪽)
1	아내의 취미라 할 만한 것은 기껏 책 읽기 정도였는데, 그 책들이란 대부분 표지를 열어보기도 싫을 만큼 따분해 보이는 것들이었다. (11)	<u>For some unfathomable reason, reading was something she was able to really immerse herself in</u> - reading books that looked so dull I couldn't even bring myself so much as take a look inside the covers. (5)
2	다만 그녀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유난히 얼굴이 멍하고 무뎠던가에 짓눌린 것처럼 보이는 아침에 내가 까닭을 물으면 “꿈을 꿴 거라고 대답한다는 것 뿐이었다. (25)	<u>It was only when she hadn't been able to sleep, when the hollows in her face were even more pronounced than usual, as though she'd deflated from within, and in the morning I would ask what the matter was only to hear 'I had dream.'</u> (17)
3	그것이 어떤 꿈이냐고 나는 묻지 않았다. 다시 어두운 숲속의 헛간, 피웅덩이에 비친 얼굴에 대한 얘기 따위를 듣고 싶지 않았다. (25)	I never enquired as to the nature of this dream. <u>I'd already had to listen once to that crazy spiel about the barn in the dark woods, the face reflected in the pool of blood and all the rest of it, and once had been more than enough.</u> (17)

<표 2>에 제시된 두 예시를 보면 사실상 원문의 리듬은 많이 파괴된 상태이며 번역가가 문장을 거의 재창조한 듯 보인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장의 길이에서도 다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주요 화자인 남편이 자신의 입장에서 아내인 영혜를 설명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원문에 담긴 내용을 번역가가 나름의 해석을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하여 남편이 영혜를 바라보는 시각을 뚜렷하게 보여주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2~3번 예시의 밑줄 친 부분은 엄밀히 말해서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나 이를 번역함으로써 영혜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원문에서 ‘얘기 따위’로 표현한 남편의 혐오감을 잘 풀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원작에서 원작가가 의도한 작품 기저에 깔린 정서를 충실하게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시도로 윤리성 기준에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표 3> 독백 부분 번역의 시적 (Poetic and Lyrical) 표현

	원문(쪽)	번역문(쪽)
1	어두운 숲이었어. 아무도 없었어. (18)	<i>Dark Woods. No People.</i> (12)
2	뾰족한 잎이 돋은 나무들을 헤치느라고~ 상처가 났어. (18)	<i>The sharp-pointed leaves on the trees, my torn feet.</i> (12)
3	무서웠어. 추웠어. (18)	<i>Frightened. Cold.</i> (12)
4	수백개의, 커다랗고 시뻘건 고깃덩어리들이 기다란 대막대들에 매달려 있는 걸(18)	<i>Long bamboo sticks strung with great blood-red gashes of meat, blood still dripping down.</i> (12)
5	아무도 날 보지 못한 사이 나무 뒤에 웅크려 숨었어 내 손에 피가 묻어 있었어. 내 입에 피가 묻어 있었어(19)	Hide, hide behind the tree. <i>Crouch down, don't let anybody see. My bloody hands. My bloody mouth.</i> (12)
6	다시 꿈을 꿔. 누군가가 사람을 죽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걸 감쪽같이 숨겨줬는데 깨는 순간 잊었어.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죽인 사람이 나라면 내 손에 죽은 사람이 누군지. 혹 당신일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아니면 당신이 날 죽였던가…… (36)	<i>Dreams of murder.</i> <i>Murderer or murdered... hazy distinctions, boundaries wearing thin. Familiarity bleeds into strangeness, certainly becomes impossible.</i> (28)
7	이제는 오분 이상 잠들지 못해. 실핏 의식이 나가자마자 꿈이야.	<i>Sleeping in five-minutes snatches. Slipping out of fuzzy consciousness, it's back the</i>

꿈이라고도 할 수 없어. 짧은 장면들이 단속적으로 덮쳐와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 피의 형상, 파헤쳐진 두개골 그리고 다시 맹수의 눈 내 뱃속에서 올라온 것 같은 눈떨면서 눈을 뜨면 내 손을 확인해 . 내 손톱이 아직 부드러운지 내 이빨이 아직 온순한지 (43)	<i>dream. Can't even call it that now. Animal eyes gleaming wild, presence of blood, unearthed skull, again those eyes. Rising up from the pit of my stomach. Shuddering awake, my hands, need to see my hands. Breathe. My fingernails still soft, my teeth still gentle.</i> (33)
---	---

<표 3>의 1번 예시에서는 두 단어로 처리된 문장을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구로 표현하여 원문과 같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시적인 느낌을 물씬 풍긴다. 2번 예시에서는 원문인 한국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각운의 처리가 돋보인다. 3번 예시의 경우에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두 개의 문장을 각각 원문과 동일하게 한 단어로 처리하면서 각운을 닫히는 소리 -d로 맞추어 쉽고 무서운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한편 4번 예시는 번역 시 수행하면 좋을 소리 내어 읽어보기를 잘 드러내는 예시로써 장모음을 적절히 사용하고 두운(頭韻)을 맞추는 전략을 사용하여 시적 표현의 중요 요소인 리듬감을 잘 표현하였다. 5번 예시에서는 원문의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절하면서도 유사한 발음을 사용하여 시적 리듬감을 놓치지 않았으며 앞선 예시와는 다르게 각운(脚韻)을 맞추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후 동일 구조로 된 두 문장을 영어에서도 동일한 구조인 두 개의 구로 표현하여 시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6번과 7번 예시는 독백 부분의 시적 표현의 절정을 보여준다. 시라는 문학 장르의 특성인 압축성과 상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번역으로 산문체로 반복적 어미와 동일한 음절 수로 이루어져 있는 원문에 비해 번역문은 훨씬 압축적이면서도 상징적이다. 특히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부분을 ‘Murderer or murdered...’로 압축 표현하면서 이후 말 줄임표를 사용하여 여운을 남기는 독특한 방식으로 주인공 영혜의 혼란스러움을 어휘뿐 아니라 문장 기호로까지 표현하였다.

더욱이 원문의 독백 부분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어의 생략을 그대로 충실히 반영하면서 7번 예시에서는 특히 ‘~ing’ 형태의 동사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동명사 또는 분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비교적 번역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독백 부분의 1~5번 예시에서는 원문이 산문 형태라 할지라도 가급적 문장이 아닌 구의 형태로 번역하려는 시도가 돋보였다면 6~7번 예시의 독백 부분을 보면 필요에 따라 문장 형태를 띠는 번역 문도 종종 나타난다. 이는 분석에 앞서 밝힌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가 자신의 번역 입장과 기획을 일관적이면서도 충실히 반영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번역 작품이 지녀야 할 시적 창조성 즉 번역 작품만의 문학성이 충분히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표 4> 서사적 관점에서 본 묘사 및 시각화 (Descriptive writing) 표현 스타일

	원문(쪽)	번역문(쪽)
1	어떻게 거길 빠져나왔는지 몰라. 계곡을 거슬러 달리고 또 달렸어. 갑자기 숲이 환해지고 봄날의 나무들이 초록빛으로 우거졌어(19)	Somehow a way out. <u>Running, running</u> through the valley then suddenly the woods <u>open out</u> . Trees thick with leaves, <u>springtime's green light</u> . (12)
2	갑자기 도마가 앞으로 밀렸어. 손가락을 벤 것, 식칼의 이가 나간 건 그 찰나야 검지손가락을 들어올리자 선홍빛의 색깔과 함께 이상하게도 그 들끓는 맛이 나를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 (26)	My hand, the chopping board, the meat, and then the knife, slicing cold into my finger. A drop of red blood already blossoming out of the cut. The scarlet color, and now the taste, sweetness masking something else, left me strangely pacified. (19)
3	다만 그 비슷한 느낌, 오싹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한 느낌만이 남아 있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느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살해한 느낌꺾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느끼지 못할... 단호하고 환멸스러운. 털 식은 피처럼 미지근한 (37)	That shuddering, sordid, gruesome, brutal feeling . Nothing else remains . Murderer or murdered, <u>experience too vivid to not be real</u> . Determined, disillusioned: Lukewarm, like slightly cooled blood . (28)

<표 4>의 예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꿈에 대한 독백이나 주인공 영혜가 남편에게 하는 혼잣말 부분에 묘사 즉 시각화 표현이 주로 나타난다. 글쓰기의 여러 형태 중 보여주기에 속하는 부분으로 번역가는 원문을 마치 영화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동사의 '-ing' 형태를 많이 사용하였다.

1번과 2번의 예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 지금 읽고 있는 문장의 현재성과 진행성을 독자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3번 예시에서는 오싹하고 더럽고 끔찍하고 잔인한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를 적절히 사용하였으며 원문과 달리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는 내용의 문장을 분절 형태로 첨가하여 그 느낌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독자에게 더욱 강하게 각인시켜주었다. 3번 예시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앞부분 두 단어의 첫소리를 맞추어 리듬감과 시적 표현을 살리고 뒷부분에서는 'lukewarm'이라는 단어가 유발하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느낌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피의 불쾌함을 극명하게 전달하였다.

5. 논의 및 결론

5.1 논의

“문학번역 비평을 통해 어떻게 문학번역 작품의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The Vegetarian*을 대상으로 베르만이 제시한 생산적 번역 비평 방법에 따라 번역가의 번역 입장, 번역 기획, 번역 지평을 분석하여 번역가 정보를 확보하고 이후 텍스트 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번역의 충실성’에 대한 번역 입장으로 데보라 스미스는 원작의 예술성과 문학적 품질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번역 작품에서 이를 구현하고자 일관되게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번역가 자신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고 밝혔던 독백 부분의 번역에서는 텍스트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시적 번역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하였다. 원문의 산문체를 운문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나 부담감이 얼마나 컸는지 감히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과감한 용기로 이겨내어 자신의 번역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 덕에 탄생한 결과물을 보면 시적 표현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상징성과 여운이 모호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주인공 영혜의 심리상태를 더욱 극적으로 나타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원작에서 뚜렷하게 드

러나는 한강 작가의 문체적 특징을 파악하여, 번역에서도 단순히 언어 차원의 등가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반복, 강조, 도치, 설의 표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어휘 사용 등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매우 일관성 있게 구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번역 기획의 관점에서 *The Vegetarian*은 기존에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한국 문학 작품과는 달리 ‘한국적인’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번역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정서에 바탕을 두면서도 영국 문학에는 낯선 새로운 문학 양식, 문체적 특징을 선보이고자 번역된 작품이었다. 따라서 번역 작품의 대상 독자인 영국 독자들이 충분히 주인공들의 감정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서사적 관점에서 정보 전달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장의 표면적 의미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작품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원작가의 의도와 행간의 의미까지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 두루뭉술한 한국어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매우 압축적으로 번역하여 이미지가 독자의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국 독자들에게는 낯선 연작이라는 소설 구성, 한강 작가 특유의 문체적 특징을 그대로 살리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The Vegetarian*이 번역되어 소개된 영국 사회의 번역 지평을 살펴봤을 때, 한국 문학은 같은 동아시아권의 중국 문학이나 일본 문학보다도 더 영국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작품이었다. 이에 대해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는 지극히 격식적이고 정형화된 영어식 어휘와 표현의 사용을 통한 번역의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을 적절히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노력이 한국 문학의 불모지라고도 할 수 있는 영어권 즉 도착어권 문화 독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착어권 독자를 지향하는 번역 기획 덕분에 아직 ‘문학 전이(literary transfer)’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 문학을 해외에 소개하는 첫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향후 한국문학 진출의 초석이 되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적 창조성 즉 문학성을 기준으로 번역 작품을 평가하여 번역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문학성이 진정한 문학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야 한다(Berman 2009)는 관점에서 볼 때 *The Vegetarian*은 하나의 영어 문학 작품으로서 충분히 홀로서기가 가능한 작품이면서, 번역가의 번역 입장, 번역

기획, 번역 지평에 부합하는 작품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론은 다른 한편으로 동일한 원작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학번역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번역가의 번역 입장, 번역 기획, 번역 지평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부합하는 문학번역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데보라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은 적어도 동시대의 영국 독자들이 낯설고 새로운 한국 문학 작품인 『채식주의자』를 접하는 데 있어 번역가의 번역 입장, 번역 기획, 번역 지평에 충실한 충분히 훌륭한 문학번역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결론은 문학번역 비평을 통해 어떻게 문학번역 작품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며 다른 훌륭한 문학번역 작품으로 인정받은 기존 작품들이 왜 훌륭한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와 의의

이번 연구에서는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에 대한 오역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문학번역 비평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하기 위해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생산적 번역 비평 방법을 적용하여 번역 비평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번역 당시 영국 사회의 번역에 대한 번역 지평, 그것의 영향을 받는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 입장, *The Vegetarian*이라는 번역 작품이 나오게 된 번역 기획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데보라 스미스 본인의 인터뷰를 많이 인용하여 번역가의 주관적 생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분석의 한계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번역가 본인의 인터뷰뿐 아니라 한강 작가의 인터뷰, 맨부커상 심사평 검토, 원문과의 텍스트 비교 분석을 통해 앞선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적 번역 비평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번역 읽기와 다시 읽기, 원문 읽기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 번역 지평 중 번역 수용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수상 이력과 같은 제도적 인정 부분에 치중한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베르만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베르만의 생산적 번역 비평 방법을 적용하여 문학번역 비평을

시도해 보았지만, 문학번역 비평은 비평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나 해석 또한 다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자들이 수행한 비평이 새로운 방법론과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학번역 작품 비평 시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나 언어적 등가 측면을 고려할 뿐 아니라 번역가의 번역 입장, 번역 기획, 그리고 그 번역이 이루어진 시대와 지역의 번역 지평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보다 유연한 문학번역 비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후속 작업으로 다른 번역 비평 방법 중 하나인 베르만의 부정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이번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거나, 같은 작품을 번역하더라도 다른 번역가가 각기 다른 번역 입장, 번역 기획, 번역 지평을 가질 때 번역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 원작을 한국어로 번역한 작품에 베르만의 생산적 번역 비평을 방법론을 적용해 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해당 언어 번역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김대중 (2016)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인문과학연구』 51: 31-59.
 김모세 (2012) 『프랑수아 모리악의 『테레즈 데케루 Thérèse Desqueyroux』를 통해 본 번역 비평의 가능성 연구』, 『외국문학연구』 48: 9-37.
 김순미 (2014) 「미적 효과 전달을 기준으로 한 문학번역 비평」, 『번역학연구』 15(1): 51-83.
 김영신 (2016)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동서비교문학저널』 37: 37-55.
 김화영 (2018) 『『광세』의 번역비평과 번역인문학: ‘기하학 정신’과 ‘시’를 찾아서』, 『프랑스문화연구』 39(1): 25-55.
 마승혜 (2017) 「독자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번역 비가시성 요소 분석 및 논의: 『채식주의자』와 영역본 *The Vegetarian*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101-135.

명선혜 (2020) 「전문 번역사의 MTPE 인식 전환 가능성 모색 - 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3): 37-62.
 신혜정 (2017) 「데버러 스미스(Deborah Smith)의 『채식주의자』 다시쓰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657-666.
 유한내 (2015) 「베르만의 번역비평 방법론과 그 적용」,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한내 (2018) 「번역상 수상 문학작품에 대한 번역비평: 『리틀 스트레인지』」, 『통번역학연구』 22(2): 103-133.
 윤소영 (2013) 「<피그말리온> 번역본 비교 아비투스의 관점에서」, 『통번역학연구』 17(2): 69-90.
 이강선 (2016) 「고맥락에서 저맥락으로: 두 권의 『채식주의자』」, 『겨레어문학』 57: 277-312.
 이상원 (2008)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번역학연구』 9(2): 149-166.
 이윤기 (2013)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 서울: 웅진 지식하우스.
 이영훈 (2015) 「앙트완 베르만의 번역비평 이론 연구」, 『통번역학연구』 19(3): 115-148.
 이인규 (2015) 「번역비평에서 오역 지적의 문제」, 『번역학연구』 16(5): 89-112.
 이인규 (2017) 「『채식주의자』에 대한 테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연구』 18(3): 173-205.
 이지민 (2016)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역본에 나타난 번역자 전략 연구 - 이 중시점과 내포작가 관점에서」, 『통역과 번역』 18(S): 137-162.
 이지민 (2018) 「『채식주의자』 영역본 *The Vegetarian*의 삭제 전략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79-207.
 이지연 (2019) 「헤르만 헤세 문학의 비교비평 시도: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를 중심으로」, 『한독문학번역연구소 학술대회』 2019(10): 75-88.
 이혜원 (2018) 「『채식주의자』 불역본의 번역비평을 위하여 - 베르만의 번역비평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실천」, 『프랑스어문교육』 63: 381-423.
 임진 (2020) 「어느 실용 번역가의 아비투스 연구: 바깥텍스트와 번역결과물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4(1): 167-199.
 지은경 (2015) 「한국현대 소설을 바라보다: 테보라 스미스 인터뷰」, 『월간 책

- (Chaeg)』 1-2월호.
- 정혜용 (2010) 「모파상의 『비계덩어리』 번역비평 시론」, 『프랑스어문교육』 35: 413-437.
- 정현상 (2016) 「“환상적인 한국 작가 많다 : ‘채식주의자’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 단독 인터뷰」, 『신동아』, <https://shindonga.donga.com/3/all/13/536523/1>.
- 조의연, 조숙희 (2019)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관과 ‘결여-향상’과 ‘해석-다양성’ 재번역의 관점에서 본 *The Vegetarian*」, 『번역학연구』 20(5): 197-216.
- Di Biase, Adriana (2015) ‘Portrait of a translator: William Weaver and the Dissemination of Italian Literature in Postwar U.S’, *Young Researchers 2013-2014*. Canadian Association for Translation Studies.
- Berman, Antoine (2009) *Toward a Translation Criticism: John Donne*. translated and edited by F. Massardier-Kenney, Kent, Ohio: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Bourdieu, Pierre (1990) *The logic of practice*, translated by Richard Nic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Flood, Alison (2016)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serves up victory to The Vegetarian’, *The Guardian*,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6/may/16/man-booker-international-prize-serves-up-victory-to-the-vegetarian-han-kang-deborah-smith>.
- Han, Kang and Deborah Smith (2016) ‘It is fascinating to ponder the possibilities of language’, *The Guardian*,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6/may/21/my-writing-day-han-kang-deborah-smith>.
- Montgomery, Charles (2014) ‘Allie Park Interviews Translator Deborah Smith’, 15 June, Available at <http://www.ktlit.com/allie-park-interviews-translator-deborah-smith-the-vegetarian/>.
- Simeoni, Daniel (1998) ‘The Pivotal State of the Translator’s Habitus’, *Target* 10(1): 1-39.

<인터넷 자료>

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2016 수상작 소개. 2021년 2월 6일 검색.
<https://thebookerprizes.com/books/vegetarian-by>

<분석대상>

한강 (2007) 『채식주의자: 한강 연작소설』, 파주: 창비.

Han, Kang (2015) *The vegetarian*, translated by Smith, Deborah. London: Portobello Books.

[Abstract]

Translation criticism on *The Vegetarian* based on the productive translation criticism theory of Antoine Berman

Kim, Minjung · Chae, Kyeonghwa · Myoung, Sunhye and Wei, Yi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a new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methodology based on the productive criticism theory of Antoine Berman. To examine how the information about a translator can have effect on the translation criticism, we analyze the translator of *The Vegetarian*, Deborah Smith as well as compare its original Korean novel and the translated one. By following the process suggested Antoine Berman, we first investigated Deborah Smith's translating position, translation project, and the horizon of the translator with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related websites and news articles and then compared the texts in terms of poeticality and ethic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translator conceived her own view point about translation and made an effort to apply it to her work overall. The translator used a localization strategy, as appropriate, tailored to the culture of the target language from the standpoint of introducing Korean literature to western culture where Korean literature is rarely known to its people. Furthermore, she followed her translation project claiming to stand for poetic translation, which she set out from the scratch. This translation criticism methodology considering fully a translator before analyzing texts, presents an opportunity to criticize the translated work from a positive point of view.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Criticism, Productive Translation Criticism, Antoine Berman, *The Vegetarian*, Translator Analysis

▶ 주제어: 문학번역 비평, 생산적 번역 비평, 앙트완 베르만, 채식주의자, 번역가 분석

김민정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학과 박사과정

whismj@gmail.com

관심분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사회번역학, 의료 통역

채경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학과 박사과정

chaekyungghwa0311@gmail.com

관심분야: 번역윤리, 문학번역, 번역비평, 통번역 교육

명선혜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학과 박사과정

sunhye.myoung@gmail.com

관심분야: 번역비평, 번역사의 아비투스, 통번역 교육, 포스트에디팅

웨이잉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학과 박사과정

weiyiing0724@gmail.com

관심분야: 번역학, 문학번역, 문체번역

논문투고일: 2021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21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4일